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I

양계민 연구위원

Vol.9 2013. 05.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I

개요 ▶▶▶

| 조사목적 |

- ▶ 본 조사의 목적은 첫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에 대한 종단자료 수집하고, 둘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발달과정에서 보이는 비(非)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며, 셋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비(非)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격차를 보이는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함으로써, 넷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발달과정에서 비(非)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보이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 조사대상 |

전국 다문화가족 청소년 중 2011년도에 패널로 구축된 초등학교 5학년 남녀 청소년 총 1,503명

| 조사방법 |

- ▶ 조사원에 의한 면접(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 조사기간 |

- ▶ 2012년 6월 ~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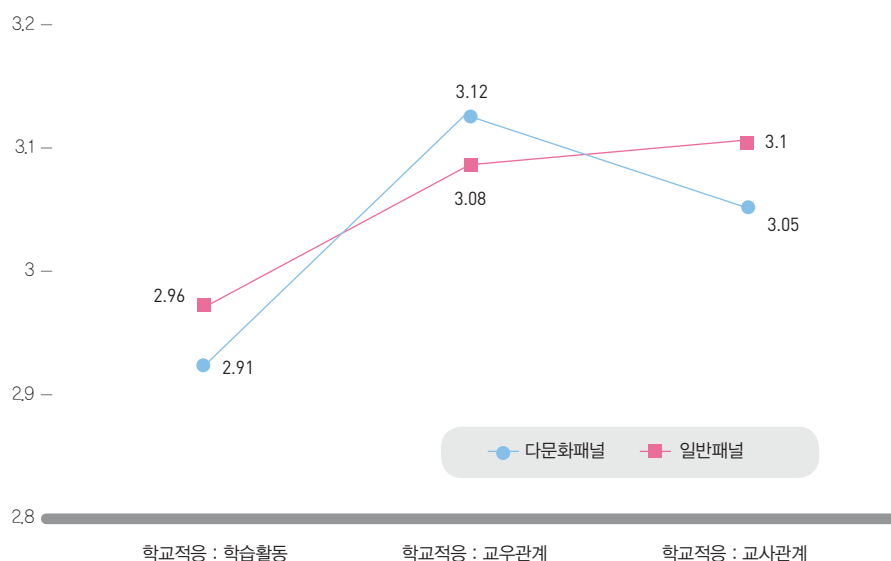
NWPI
YOUTH
RESEARCH
BRIEF

1.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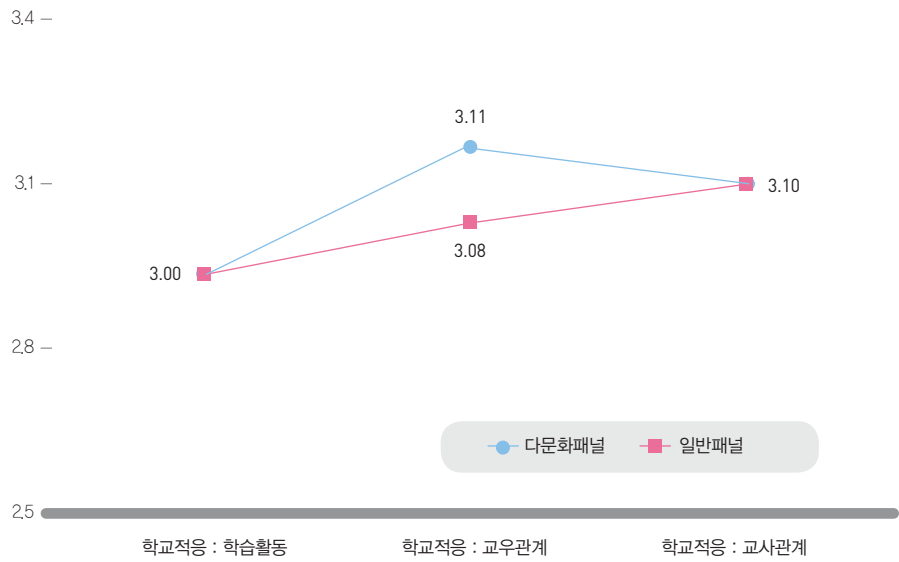


- 본 연구에서 구축한 다문화패널과 본 연구원의 또 다른 패널자료인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에 따라 학교적응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임. 소득수준이 ‘중’ 또는 ‘상’인 집단의 경우 다문화패널집단과 일반패널집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소득수준이 ‘하’인 집단에서만 차이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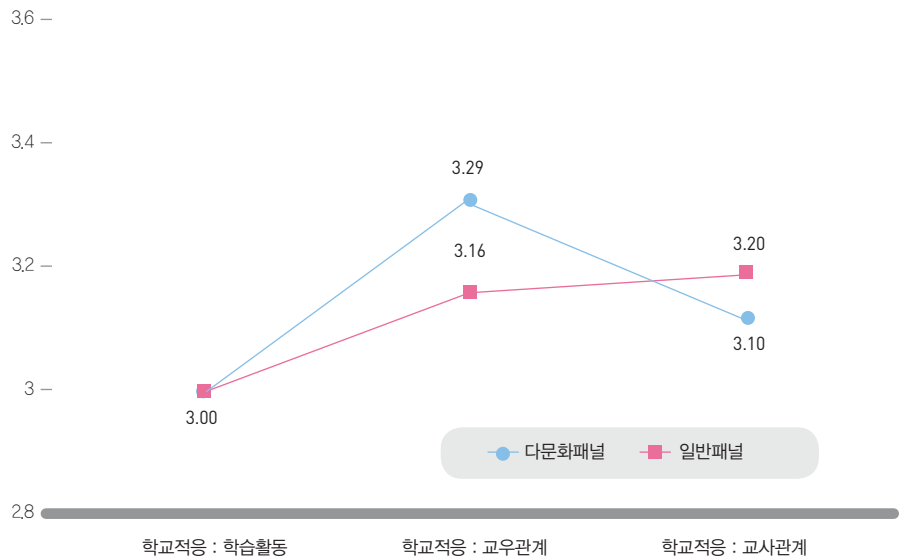
소득수준이 ‘하’인 집단의 경우는 다문화패널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수준 중 학습활동과 교사관계의 평균값이 일반패널 청소년들의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우관계는 오히려 다문화패널 집단의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수준이 ‘중’인 집단과 ‘상’인 집단의 경우는 학교생활 적응수준에서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그림1]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학교생활적응차이: 소득수준 ‘하’인 집단(5점 만점의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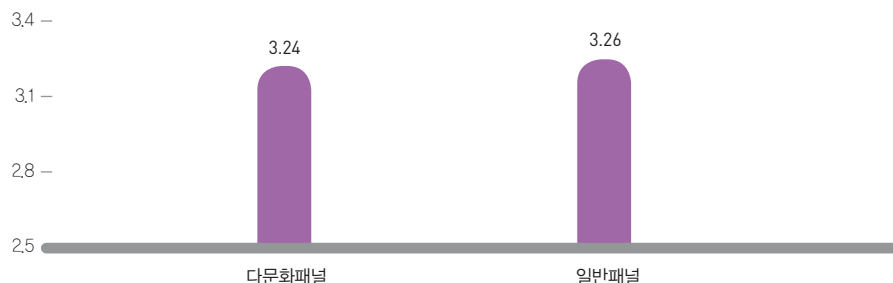


[그림2]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학교생활적응차이: 소득수준 '중'인 집단(5점 만점의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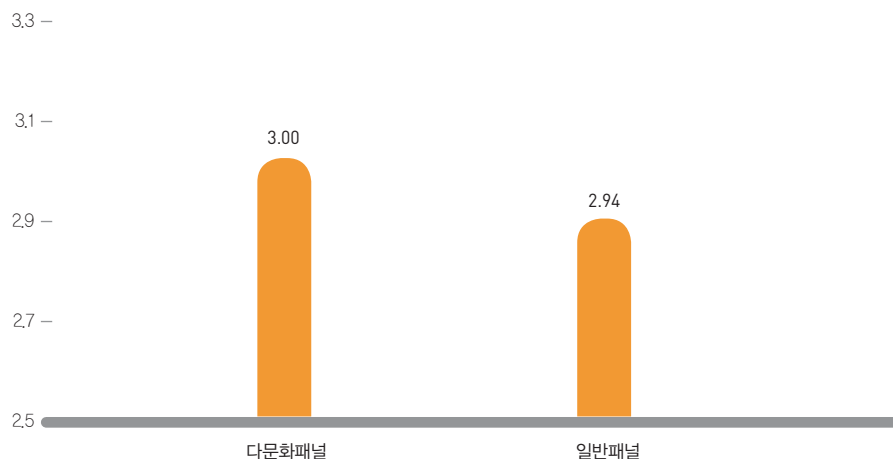
[그림3]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학교생활적응차이: 소득수준 '상'인 집단(5점 만점의 평균값)

다문화패널집단과 일반패널 집단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비교한 결과 소득수준이 ‘상’, ‘중’, ‘하’인 경우 모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따라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일반가정 청소년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시사함.



[그림4]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삶의 만족도: 전체집단(5점 만점의 평균값)

다문화수용성의 경우 소득수준이 ‘중’ 또는 ‘하’인 집단의 경우 다문화패널 집단과 일반패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소득수준이 ‘상’인 집단의 경우는 다문화패널 집단의 평균값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5]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다문화수용성: 소득수준이 ‘상’인 집단(5점 만점의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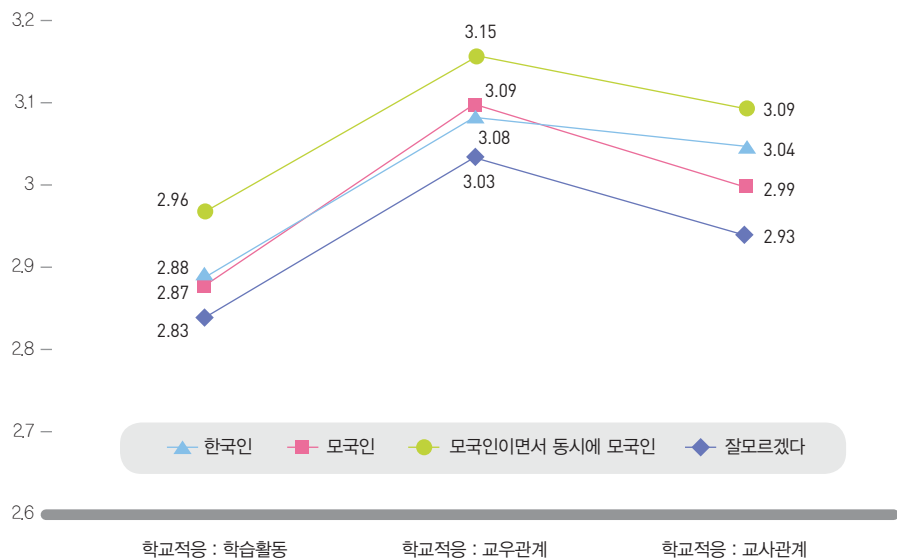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일반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적응 수준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고정관념과는 맞지 않는 결과로, 소득수준이 낮은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적응에서 학습활동이나 교사관계에서 취약할 수 있으나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일반청소년들과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정관념이 모든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하는 결과임.

2. 어머니의 국적정체성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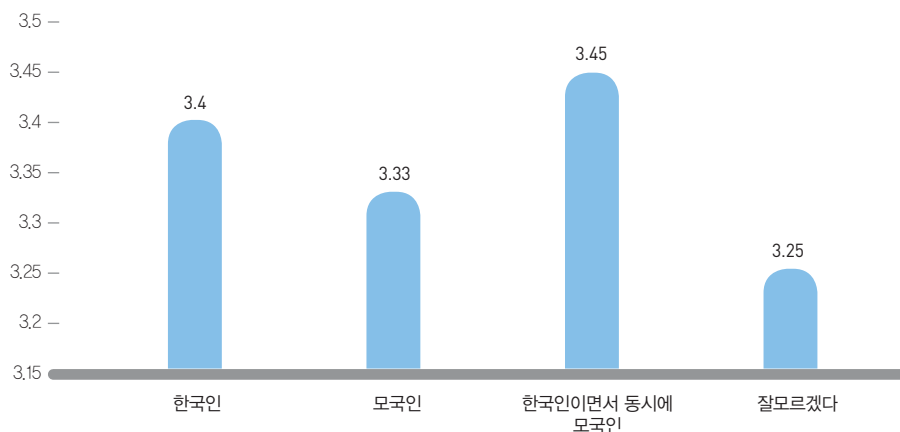
- 어머니가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모국인’이라는 이중 정체성을 지닌 경우 ‘한국인정체성’만 지닌 경우 또는 ‘모국정체성’만 지닌 경우보다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어머니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모국인’이라는 이중국적 정체성을 지닌 경우 그렇지 않은 다른 집단에 비해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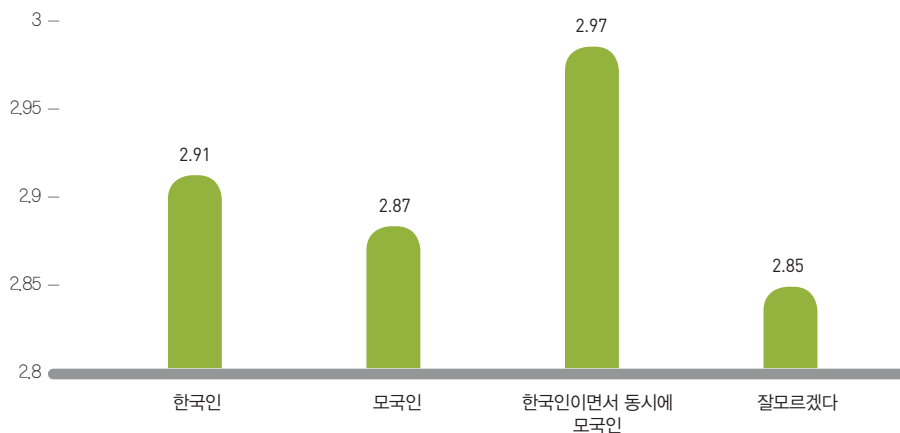
[그림6] 어머니의 정체성에 따른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수준(5점 만점의 평균값)

어머니의 정체성이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모국인’인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자녀의 학교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7] 어머니의 정체성에 따른 자녀의 학교성적수준(5점 만점의 평균값)

어머니의 정체성에 따른 자녀의 성취동기 수준 역시 어머니가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모국인’이라는 이중정체성을 지닌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8] 어머니의 정체성에 따른 자녀의 성취동기 수준(5점 만점의 평균값)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인으로 완전히 동화되거나 모국인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보다 ‘한국인인 동시에 모국인 정체성’을 이중적으로 유지하는 경우 자녀의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향후 다문화정책의 방향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114 교총빌딩 9/10층

114 Taebongro, Seocho-Gu, Seoul 137-715 Korea

Tel. 02-2188-8800 Fax. 02-2188-8869 www.nypi.re.kr

